‘도시공원 일몰제’로 강제수용 내몰린 사찰들

2020년 7월 시행, 지자체 무리한 토지매입 추진 논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거주 · 종교시설 서울 참나선원
30년간 포교 · 나눔 이어왔지만
지자체가 공익 명분 내세우면
강제수용 피할 수 없어 난처

281개 사찰 도심공원 내 위치
조계종 사찰만 114개로 파악
일몰제 해당 사찰 구제 절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참나선원.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각 지자체가 긴급하게 사유지인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년간 공원조성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녹지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지탄을 우려해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각 지자체의 사유지 매입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토지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 약 340㎢, 즉 서울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녹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녹지 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지자체들이 공익을 명분으로 사유지의 토지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이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 관악구 덕수공원 옆의 참나선원(주지 성범)이다. 조계종 사찰인 참나선원은 30년 전 지금의 자리에 창건돼 경찰병원 포교, 비행청소년 교화, 지역민 자비나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도량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게다가 참나선원은 최근에야 토지매입에 대한 구청의 연락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식적인 보상비가 책정되진 않았지만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사찰 이전이 불가능한 금액일 것으로 참나선원 측은 보고 있다.

참나선원 총무 무관 스님은 “사찰부지를 비롯해 주변에 30~40평씩 개인 소유의 땅들이 있다. 공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사찰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도 공익목적의 수용을 인정하고, 참나선원은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자리에서 수행 · 포교를 이어가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무관 스님은 이어 “이번 일은 참나선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공원부지에 속한 전국의 수많은 불교수행처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사유지 매입에 대한 토지주들의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관악구에서만 40만㎡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아직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상황”이라며 “거주공간인 참나선원만 제외한 채 토지매입이 가능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30일 기준 정부가 파악한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등 도심공원 내 사찰은 전통사찰을 포함해 총 281개다. 이 중 114개가 조계종 사찰이지만 어떤 사찰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란다축제’, 글로벌 불교축제 발돋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계획 발표
9월 7일 동국대 일원서 개최

외국인 참여 글로벌마당 도입
국가별 체험, 명상 등 진행
교리경시대회 혜택도 증가

불교 미래 동량을 키워내는 불교계 대표 청소년 축제 ‘나란다 축제’가 외국인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한단계 발돋움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7월 17일 조계종 전법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회 나란다축제 계획을 발표했다.

9월 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나란다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마당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마당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와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知) · 덕(德) · 체(體) 3개 존으로 나뉘어 구성되는 글로벌 마당은 한국문화를 퀴즈로 배우는 ‘OX퀴즈’와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별 불교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또 외국인 불자들이 함께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미니 명랑운동회’로 상호 국가간 화합의 장을 펼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일반인 참여도 자유로웠던 K댄스경연대회가 불자청소년들을 위한 무대로 진행하기 위해 동국대 팔정도 특설무대로 장소를 옮긴다.

지난해 선보인 ‘나란다 장학퀴즈’는 시간대를 오후로 옮겨 군장병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장학퀴즈는 군부대와 학교 및 단체를 대표하는 2명이 불교교리와 시사, 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교교리경시대회와 중복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접수팀이 8팀을 넘어설 경우 시험방식의 예선을 거쳐 결선에 참가할 8팀을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은 결선점수 합산제도와 OX퀴즈 방식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오래 함께 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변모할 예정이다. 교재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초등부 기출문제〉로 일원화해 공부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였고, 기출문제집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붓다야! 놀자’는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경내에 설치된 7곳 장소에서 진행된다.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 · 고등부는 9월 7일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 고사장에서 펼쳐진다. 서울 동국대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및 단체에는 차량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관생도 부문은 9월 18일 오후7시부터 8시까지 각 사관학교에서 경시대회가 펼쳐진다.



매회 변화를 시도하는 나란다축제

2009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로 시작
2010년	‘도전! 범종을 울려라’ 도입 군장병 경시대회 첫 실시
2011년	찬불가 및 UCC 경연대회 도입
2012년	‘나란다 드림콘서트’ 등 문화마당 신설
2013년	사관생도 부문 ‘불교교리 경시대회’ 신설 외국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 신설
2014년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개최
2015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신설
2016년	‘붓다야! 놀자’ 및 ‘우리말독송대회’ 신설
2017년	도전! 범종을 울려라 등 인터넷 생중계
2018년	초등부 ‘점수합산제 도입
2019년	글로벌마당 첫 운영

시험문항은 중등부 40문항, 고등부 · 군장병 · 사관생도부문은 45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불교신행 · 생활 등에서 출제된다. 총 장학금 9000여만원이 지급되는 나란다축제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이 함께 시상된다. 또한 부문별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결과발표는 10월 4일 진행된다.

이밖에 나란다축제 행운권 추첨은 9월 7일 오후5시30분 팔정도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경품은 현장 인원에 한해 지급된다.

한편, 나란다축제는 지난 10년 동안 진화와 성장을 거듭해왔다. 나란다축제 연도별 참가현황을 보면 2009년 첫 대회서 2600여 명이 참여 한데 이어 2010년 6000여 명, 2011년 8300여 명, 2012년 8800여 명, 2013년 9500여 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1만700여 명으로 참가 연인원 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 “나란다 축제는 한국불교의 위상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다. 젊은 층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데 일조 하고 있다”며 “끊임 없는 노력으로 한국불교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올해 임관한 신임군승.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수행자 본분 지키며 군포교 매진”

조계종 신임군승 10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

올해 신임군승으로 임관한 불교 군종장교 10명이 수행자 본분에 따른 군포교를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과 신임 군승 10명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서 신임군승들은 원행 스님에게 임관신고를 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행 스님은 “군승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임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청년인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자리”라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심혈을 기울여 장병들의 심성 계발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신임 군승들이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면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자신의 군생활 인연담을 전하며 모든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제대 무렵 병참부에서 근무할 당시 사단에 군법당이 없었다. 그때는 3군사령부에 근무하는 법사께서 한 달에 1번씩 법회를 보러 오셨다”며 “그 분이 자광 스님이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인연을 마주하면서, 이를 소중히 여겨 한국불교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정 33관음성지순례사찰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경기 용주사, 신륵사 인천 보문사 강원 신흥사, 낙산사, 월정사, 법흥사, 구룡사
충남 수덕사, 마곡사 충북 법주사 전남 송광사, 백양사, 대흥사, 화엄사, 향일암 전북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부산 범어사 경남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보리암 대구 동화사 경북 불국사, 은해사, 직지사, 고운사, 기림사

깊은 산, 맑은 물, 새소리, 바람 소리를 벗 삼아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놓습니다.

천년의 긴 세월을 잊은 듯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한 고찰에서
회오리치는 번뇌도 훌훌 털어봅니다.

잔잔한 부처님의 미소가 위안을 안겨줍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밝은 지혜를 안겨주는 여행길,
33관음성지순례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33관음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문의/인장첩 구입:02-2031-2000